



칭찬하고 응원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생활의 활력소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합니다. <편집자주>

푸른신문에서는 주민여러분의 따뜻한 칭찬과 응원, 미담사례를 접수 받고 있습니다.

푸른신문 '칭찬하고 응원해요'란에 들어갈 가족 또는 우리 이웃들에 대한 힘이 되는 메시지와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시면 예쁘게 편집해서 실어드립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 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하고 응원해요'는 계속됩니다.



*접수는 이메일 pr5726000@naver.com로 보내주세요.

푸른방송 영업전략팀 강상모 매니저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늘 차분하고 묵묵히 푸른방송의 설치를 맡아주시는 강상모 매니저님을 칭찬합니다. 전산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정신없고 실수하는 일이 많은데 그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알려주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더운 현장에서 바쁘고 힘들고 귀찮으실 텐데... 현장에 관해 모르는 업무도 온화한 미소로 나긋하게 설명해 주시는 매니저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설치 업무를 완벽하게 완수하시는 강상모 매니저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미소는 지친 사람에겐 휴식이고 낙심한 사람에겐 햇살이며 슬픈 사람에겐 따뜻한 양지이다.

<칭찬하는 사람:전현성>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이도영 칭찬하고 응원합니다.

나의 오랜 벗~ 도영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너는 다른 사람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일도 언제나 먼저 나서서 최선을 다 하지. 언제나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하고 양보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색도 잘하지 않고... 이젠 속상하거나 힘들 때~~~ 큰소리로 이야기 해 "나 힘들어!"라고... 앞으로도 우리 서로 이야기하며 더 잘 지내자. 같이 힘내자! 화이팅!!

<칭찬하는 사람:정춘옥>

우리 동네 핫플 이 가게 어때?

성당한우소머리국밥

달서구 아외음악당로 21-1(성당동) 문의 ☎053-654-9167

'진한 국물 맛' 무더운 여름 더욱 건강하게!

성당행정복지센터 부근 북개도로 방향 100m 근방에 있는 노포 식당 같은 동네 맛집 '성당한우소머리곰탕!'

겨울이면 생각나는 뜨끈한 곰탕이지만 여름철 더위에 장마도 끼어있어 몸보신하기 위해 소문을 듣고 찾아가 보았다.

진한 국물들의 향연! 직접 끓이고 만들어 내주시는 깊고 진한 국물과 고소한 머릿고기, 다양하고 맛깔나는 밑반찬들과 경북 의성에서 직접 쌀농사를 지어 내주시는 흰쌀밥·떡볶이에 끓여나온 육수는 잡내 하나 없이 진국이였다.

30년 넘게 장사를 해오셨고 이



곳에서만 2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너무나 친절한 사장님. 대표메뉴 외 추천메뉴를 여쭙니 여름철에만 맛볼 수 있는 '콩국수'를 추천해 주셨다.

불린 콩을 직접 갈아 만들며 검은콩을 섞어서인지 너무나 고소하고 깊은 맛에 국물 한 방울 남



기지 않고 쓱삭~. 이곳에서 먹는 음식이야말로 바로 몸보신, 보약 아닐까? 어머니의 손맛! 진한 국물을 맛보고 무더운 여름날 더욱 건강하게 보내고 싶다면 '성당한우소머리곰탕'을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 박영선 객원기자

